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5호 【루계 제24843호】 주체104(2015)년 3월 6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최태복동지, 오수용동지, 리재일동지, 조용원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건설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미풍이 사회적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양로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설계로부터 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건설장에 진출한 군인건설자들은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불과 40여일 남짓한 사이에 굴착공사와 골조공사를 끝내고 내부미장에 진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양로원의 자태가 완연히 드러났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1948년 5월 승호군 만달리에 자리잡고있는 양로원을 찾으시여 로인들이 리용하는 이불과 밥그릇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나라에서 로인님들을 잘 돌봐드리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고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년로자들에 대한 인민적시책들은 행복한 나날에나 고난의 나날에나 변함없이 실시되여왔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로원을 잘 꾸리는것은 우리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양로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우자면 늙은이들의 체질적 및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생활조직과 정서생활, 몸단련 등을 원만히 할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양생들이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생활할수 있는 침실, 식당은 물론 적당한 운동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운동실, 오락실, 도서실, 영화관도 손색없이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보양생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알맞는 대책을 세울수 있는 치료실도 꾸리고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를 비롯한 편의시설들도 잘 건설해주며 그들이 산보도 하고 야외식사도 할수 있게 내정을 특색있게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로인들은 밥맛이 날 정도로 일도 해야 장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양로원에 수경온실을 건설해주고 터밭도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평양시양로원에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도입하며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을 비롯하여 환경정리를 잘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라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고있는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시양로원의 외부 및 내부형성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게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양로원운영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류는 물론 관리성원들이 착용할 단체복을 잘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양로원이 일떠서는 곳은 당에서 아끼던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양로원을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양로원을 보양생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표준으로 꾸림으로써 지방들에서도 이곳을 본보기로 양로원들을 잘 건설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양로원들을 보양생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금자리로 잘 꾸림으로써 그들이 당과 국가,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6월말까지 평양시양로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건축물,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지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3월8일혁명 5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수리아에서의 3월8일혁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발전을 위한 수리아인민의 노력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인민이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내외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령토완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주체104(2015)년 3월 4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들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근위부대들의 전투행로를 보여주는 근위부대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부대들이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물질적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이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앞으로의 싸움에서 미국의 성조기와 추종세력들의 기발을 걸레짝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조선군대와 인민의 승리전통교양의 거점이며 반미교양의 중심기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란의 신문 《이란 데일리》, 프레스TV방송, 이리브방송, 인디아의 신문들인 《인디안 엑스프레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스테이츠맨》, NDTV방송, 지 뉴스TV방송, 파키스탄신문 《더 네이순》, 에짚트의 사다 엘 발라드TV방송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라오스통신, 뻬루신문 《라 라쏜》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된데 대하여 전하였다.

라오스, 이란, 파키스탄, 네팔, 뻬루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전국행정책임일군들의 결의모임 진행

【삼지연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전국행정책임일군들의 결의모임이 5일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행정책임일군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설적인 빨찌산청년장군의 모습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모셔져있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대기념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을 맹세하는 전국행정책임일군들의 결의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조직하여주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국의 행정책임일군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 깊이 체득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준비하는 혁명적교양과 단련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답사행군과정에 행정책임일군들이 백두의 산발들을 주름잡으시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고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태양의 성지를 정신적기둥으로 삼고 백두의 혈통을 억세게 이어갈 철석의 의지를 더 굳게 간직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고 말하였다.

혁명선렬들의 피어린 자욱이 그대로 새겨져있는 전구들에서 진행된 장편서사시 《백두산》랑송모임과 혁명가요합창경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 답사소감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야외숙영은 행정책임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붉은 기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조국해방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투사들의 혁명적신념과 열화같은 조국애, 혁명적락관주의를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주민세대에 들어가 생활형편도 료해하고 식사와 잠자리도 같이하면서 진행한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행정책임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함께 하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체험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의 하루하루가 행정책임일군들에게 있어서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받아안은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고 말하였다.

전국의 행정책임일군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리길을 위대한 당을 따라 억세게 걸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적신념을 더욱 벼려주고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행정책임일군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사수하여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된 항일투사들처럼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넋을 불태우며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쳐나간 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가 되고 전위투사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이끌어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모든 전역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국의 행정책임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지니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의 웅대한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실현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높이 떨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강하게 세우고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불사르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력사적인 결론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일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백두산에서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일편단심 충정다하며 위대한 당의 백전백승의 령도를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신념의 행군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결의모임은 끝났다.

참가자들은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았다.

이에 앞서 전국행정책임일군들은 우리 조국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눈보라를 헤치시며 걸어가신 력사의 그 길을 따라 행군하면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백두령장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기였다.

백두의 칼바람안고 강계정신은 더욱 불타오른다

자강도,

그 이름만 불러도 눈굽이 찌릿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영광의 고장,

락원의 길을 여시려 강계를 찾아 몇천리라는 노래의 구절이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고 이름없는 령길도, 크지 않은 실개천도 위대한 장군님 생각으로 숭엄해지게 하는 력사의 땅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창조된 사회주의수호정신이며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 투쟁정신인 강계정신이 오늘은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세차게 타오르고있었다.

도안의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우리에게는 자강도가 소문을 내지 않고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건설, 최첨단돌파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난의 시기 장자강의 불야경을 펼친것처럼 자강도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도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것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럴수록 강계정신을 더욱 빛내이시며 자강땅에 사회주의문명의 새 화폭을 펼쳐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이 거대한 시대적의미를 안고 새겨졌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창조와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투쟁의 전구들을 찾으며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세계가 어떤 기적을 창조하고있는가를 볼수 있었다.

장자강반에 메아리치는 로동당찬가

자강도에서는 책임일군도, 평범한 로동자도 우리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열정, 하늘같은 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눈굽을 적신다.

그들의 심장의 고백을 듣느라면 자강땅의 날과 달은 우리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흐르고 절세의 위인에 대한 자강도인민들의 매혹과 흠모속에 이어지고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가슴을 친다.

강계시의 장자강반에는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나에게 정든 고장입니다. 김정일**》이라는 명제비가 고난의 행군승리의 기념비인듯 정중히 모셔져있다.

명제비를 바라볼수록 고난의 행군시기 나에게 제일 큰 힘을 준것이 강계정신이라고 하시며 추위와 더위, 비바람도 가리지 않으시고 자강땅을 쉬임없이 찾고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숭엄히 어려왔다. 그리고 우리 혁명의 가장 엄혹한 시기에 죽어도 기계설비만은 베고 죽겠다고 하며 공장을 지키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쌀을 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일감을 달라고 하던 당에 충직한 자강도로동계급의 모습이 눈앞에 밟혀왔다.

어찌 그뿐이랴.

만경대일가분들의 발자취가 스며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과 고난의 행군결속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력사의 고장, 어버이장군님께서 뿌리신 강성부흥의 귀중한 씨앗이 자라고있는 자강도를 더욱 빛내여주시고 우리 장군님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주시던 자강도인민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자강도인민들이 어버이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강계정신을 더욱 빛내이며 창조와 변혁을 일으키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우리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끝이 없다.

지방도시들가운데서 강계시에 제일먼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도록 하여주시고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모란봉악단의 공연도 함께 보시며 그들을 축하하여 열정적인 연설도 하신 그 믿음,

최고사령부의 나팔수인 공훈국가합창단의 지방순회공연의 첫 무대를 자강땅에 마련해주시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주는 축포야회도 펼쳐주신 그 은정은 백두의 칼바람으로 강계정신을 더욱 빛내이도록 하시는 참으로 사려깊고 웅심깊은것이였다.

지난해 2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의 기념촬영장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대표들에게 답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강도의 한 녀성관리위원장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였다.

수십년세월 땅을 다루어온 그의 거친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 내세워주신 시대의 영웅답게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힘을 주시고 고무를 주시였다.

진정 그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강계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가장 뜨거운 믿음이고 은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자강도의 혁신자들을 만나시면 그리도 기뻐하시고 한해두해 나이가 들어가는 자강땅의 녀성공로자들의 건강을 념려하시며 귀한 보약재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수천평의 땅을 옥토로 가꾸어가는 중장군의 한 농산작업반원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그토록 귀중히 여겨주시였고 성간군의 평범한 농장원이 많은 분배를 받은 자랑을 삼가 아뢰인 소박한 편지도 반갑게 보아주시였다.

한 차굴공사장에서 사경에 처한 동지들을 구원하고 최후를 마친 돌격대원에게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자강땅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여있다.

그는 과오를 범하고 공사장에 나온 돌격대원이였다. 그의 안해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에게 과오를 씻기 전에는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주었다. 얼마후 안해는 세상을 떠났다.

안해의 장례식에 갔던 그는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킨 다음 오라고 하면서 흐느끼는 딸자식들앞에서 차마 머리를 들수 없었다. 떳떳한 남편,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안해와 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공사의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에 한몸을 내대던 그는 뜻밖의 봉락이 일어나자 동지들을 구원하고 생을 마치였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생의 곡절을 겪으면서도 당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며 동지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그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전투현장에서 전달하던 그날 책임일군도 감격에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고 돌격대원들도 참고참아오던 눈물의 동을 터치고야말았다.

영웅적소행의 주인공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고 그의 딸들은 정든 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혁명학원으로 떠났다.

이것이 어찌 그 혼자만이 받아안은 사랑과 영광이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사장에서 희생된 돌격대원들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자녀들의 운명과 장래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힘은 놀라운 기적을 낳았다. 돌격대원들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결사전을 벌려 남은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 그것은 정녕 자강도의 매 사람, 매 가정들이 강계정신을 꿋꿋이 이어가게 하는 원천이였으며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천으로, 만으로 새겨지는것이 오늘의 자강땅이다.

어느 한 공장의 로동계급이 거둔 성과를 두시고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야 자신의 마음이 가볍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하여 특별렬차를 보내도록 하시고 자강도의 중요부문 로동계급에게 물고기와 과일들을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과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그 사랑, 그 믿음속에서 자강도인민들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백두의 칼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올수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진정한 혁명전우, 동지들이 되였다.

백두의 칼바람은 신념의 대를 이어준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속에서 장자강반에는 로동당찬가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고 자강도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게 되였다.

절절한 그리움, 불타는 충정

이 땅 그 어디나 그러하듯이 자강도도 그리움이 차넘치는 고장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자강도인민들의 무한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의 국토관리사업에서 자강도는 전국적으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다른 도들에 비해 남달리 조건이 유리해서가 아니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려는 불타는 충정,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이 무궁무진한 힘으로 분출되였기때문이다.

닭알을 공급받는다는 기계공장의 선반공도, 누에고치생산성과를 자랑하는 농업근로자도 그리고 례년에 없는 생산실적을 기록했다는 오리공장의 사양공도 누구라없이 당의 고마운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각별해지고 뜨거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자강도인민들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바다를 채워주었다.

고난의 시기에 남달리 많은 눈물을 흘리였고 우리 당을 받들어 보답의 길을 충직하게 걸은 자강도인민들이 행복과 문명을 누리게 하여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해에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한 흥주닭공장과 강계오리공장, 강계돼지공장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흥주닭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의 생산정형을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은 먹이보장문제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는 죄송감을 안고 실태를 그대로 말씀올리였다.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당에서 마련해준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년년이 은을 내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눈물을 흘리며 종자집짐승까지 줄여야 했던 자강도목장관리국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감격과 기쁨은 그 얼마나 컸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그들은 일터마다에서 전례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켰다. 여러가지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을 도입하여 많은 먹이를 절약하면서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먹이첨가제를 자체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리는 그들의 한없는 그리움을 자강첨가제공장의 ４００포기 장미가 말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꽃향기속에 모시고싶어 도목장관리국의 일군이 밤길을 걸으며 구해온 류다른 품종의 장미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열화같은 그리움을 안고 한포기한포기의 장미를 애지중지 심고 가꾸었다.

귀중한 장미가 박달나무마저 얼어터진다는 북방의 강추위에 얼면 어찌하랴.

모두가 밤잠을 잊고 방도를 찾아냈고 한포기라도 상할세라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그 진심과 진정에 떠받들려 장미는 온 강산이 얼어붙은 엄동설한에도 벼짚에 감싸여 눈무지속에서 자라게 되였다.

눈속에서 자라고있는 ４００포기의 장미, 자강땅의 장미는 토양이 아니라 그리움속에 뿌리내린 꽃이였고 충정의 열도로 피우는 꽃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자강도인민들이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계속 통이 크게 벌려나가며 잠업도, 비단도답게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우리 원수님.

그 사랑속에서 강계시안의 인민들이 닭고기와 닭알을 받아안으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고 장자강의 불야경속에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으며 온 도가 혁명적앙양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한해 남짓한 기간에 장자강물결우에 문명의 새 모습이 비끼게 된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강계시를 청춘도시로 꾸리고 자강도에 인민의 락원을 펼치시기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사색과 심혈은 그 얼마인가.

중앙의 설계집단과 불장식연구사들도 보내주시고 강계시의 도시형성축도 밝혀주시며 건설에 필요한 자재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전하며 장자강은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만도 강계포도술공장개건보수설계와 자강도애육원설계안을 비롯한 근 ２０건의 설계문건들을 친히 보아주시며 완벽하게 완성해주시였다.

때로는 잘못된 점도 바로잡아주시고 때로는 설계가 잘되였다고 평가도 해주시며 하나의 살림집과 건축물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자강도에서 단 한해사이에 ５０여개의 대상건설을 훌륭히 완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다 전할수는 없다.

북변땅의 중소형발전소에 빛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현판인 《**만포연하발전소**》와 그이께서 명명해주신 《**장자강인민유원지**》, 《**장자강버섯공장**》, 《**인풍원**》, 《**자강첨가제공장**》 등은 절세의 위인의 사랑과 은정을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자강도인민들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게 하며 강계정신을 빛내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온 자강땅에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굽이치게 하였다.

한겨울에 장자강버섯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심장에 용암처럼 끓어번진것도 충정의 일편단심이였다.

그들은 한겨울의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비닐박막덧집을 짓고 나무불을 피워올리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저녁이면 눈이 충혈되고 퉁퉁 부어 잠들기조차 힘들었지만 하루 ３시간이면 충분한 휴식이라고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렸다.

제 날자에 무조건이란 말을 누구나 외우며 한치한치 언땅을 까내고 온몸이 그대로 불이 되고 열이 되여 콩크리트층막의 양생온도를 보장한 그들의 심장속에 맥박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한마음이였다.

우리 원수님을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하게 받들어나가는 건설자들의 불타는 충정에 떠받들려 지열랭난방체계가 도입되고 정보화, 과학화가 실현된 장자강버섯공장이 솟아나게 되였다.

기계설비가 부족하면 맞들이와 등짐으로 토량을 처리하고 골재와 돌을 나르면서 수천m의 장자강제방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장자강에 대형분수를 세운 강계시민들과 건설자들, 차굴구간우의 ６０m 높이의 산을 통채로 허물어 도로를 내며 공사속도를 높인 도안의 돌격대원들의 투쟁과 전진의 길동무는 백두의 눈보라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어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자강땅에 두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광경을 펼치였다.

장자강기슭을 따라 유보도, 아스팔트도로가 시원하게 뻗어나가고 인민유원지, 문화휴식터, 궁궐같은 대중봉사기지가 생겨났으며 장자강의 불야경이 새로운 밤풍경을 펼치였다. 나날이 향상되는 인민들의 식생활과 고상한 문화정서생활은 백두의 칼바람이 행복과 문명을 꽃피워주는 따스한 바람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작업의 쉴참에도, 힘겨울 때에도 《불타는 소원》노래를 부르는 도안의 건설자들의 모습은 사무치는 그리움이란 어떤것인가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당의 은정이 뜨겁게 어려있는 아스팔트로 포장한 강계—명문도로를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놓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날이 준공식날이였으면 하는 자강도인민들,

그들의 절절한 눈빛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강도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이며 베푸신 은정이 얼마나 뜨거운것인지 절감할수 있었다.

그 사랑과 믿음을 안고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인 자강도인민들은 백두의 칼바람을 일으키며 행복과 문명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다.

백두산바람이 터친 자강도의 눈보라폭풍

백두의 칼바람이 자강땅의 눈보라로 터진듯싶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끝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자강도인민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진의 발걸음을 크게 떼였다.

대중의 정신력이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힘과 용기가 천백배로 용솟고있다.

도와 군의 일군들로부터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과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로동자와 농업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속속들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당사상일군들이 랑림군일대에서 새로 발굴고증된 《백두산천년국 세계에 세우자》를 비롯한 혁명적구호문헌과 혁명유적유물들에 대한 이동강의를 힘있게 벌리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성명을 철저히 구현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할 의지로 온 도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다.

고난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같이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온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

강계정신의 창조자답게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계속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강계정신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을 받아안은 자강도인민들의 심장이 어떻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지 않겠는가.

자강도가 백두의 칼바람을 일으키는데서 앞장에 서자.

이것이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자강도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신념의 웨침이다.

도안의 기계공장들에서는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최첨단돌파전, 새 제품개발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건설부문에서는 자강도《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과 도체육관을 비롯한 수십개의 중요대상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할 혁신적인 공법들과 방도들을 찾아내고 실천에 도입하고있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할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놓았으며 전력공업부문과 잠업부문에서도 전력생산과 누에고치생산을 늘일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며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다.

자강도사람들의 장담은 빈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고마움의 정, 감사의 정으로 분발해나설줄 알며 말은 적게 하여도 실천으로 당을 받들어나가는것이 자강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투철한 립장, 과학기술과 인재를 중시하는 기풍이 차넘치는 곳이 또한 자강땅이다.

북방의 기후조건에서는 겨울철에 건설을 할수 없다고 하던 기성관례를 깨여버린 건설자들의 위훈이 그것을 보여주고있으며 등짐과 마대로 쌓아올린 초산청년１호, ２호발전소의 웅장한 사석언제, 도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자강첨가제공장의 현대적설비들, 여러곳에 도입된 실리있는 지열랭난방체계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자강도인민들이 군자리정신, 강계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욱 억세게 심어주시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도는 비약의 나래를 더 크게, 더 억세게 펼치였다.

산림복구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모든 산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되고 중소형발전소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전기를 팡팡 생산하며 공장들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동음이 세차게 울릴 때 오늘도 자랑높은 이 고장의 행복과 문명은 과연 어느 높이에 이를것인가.

현대적이며 특색있는 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장자강과 북천의 곳곳에 덕수터며 조약대, 미끄럼대를 갖춘 물놀이장과 야외수영장들이 건설되며 모든 강이 애국의 강,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되면 강계정신이 창조된 력사의 고장 자강도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모될것인가.

어제날 처서판의 막벌이군, 화전민의 후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사회주의복을 맘껏 누렸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문명의 화원을 더 활짝 꽃피우고있는것이다.

자강도는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내달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축도이기도 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６,０００여리의 눈보라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하지만 자강도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강계의 눈보라가 오늘도 휘몰아치고있으며 강계정신은 영원한 투쟁의 기치, 승리의 표대로 되고있다.

강계정신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정신이며 강성부흥에로 나아가는 자강도인민들의 넋이고 기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의 심장속에는 우리 당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드팀없는 의지가 맥박치는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강도인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１０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것이다.

본사기자 정선철
특파기자 동세웅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가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크라

가나공화국 대통령
죤 드라마니 마하마각하

나는 가나독립 5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3월 5일 평 양

혁명적구호문헌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왕재산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우리 당사상사업의 교과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당사상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분출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사상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자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간다면 막힐것도 모를것도 없을것이며 우리 당사상사업이 그대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될것입니다.**》

사상은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며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이 개척되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 하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으며 사상론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상사업의 교과서는 한평생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령도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령도사에는 사상사업의 고귀한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령도사는 우리 사상일군들이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교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사상사업은 일이 힘들고 정세가 엄혹한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나는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나는 사상지상주의자이며 사상을 그 어떤 재부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땅크가 있었습니까, 인민이 있고 대원들이 있고 경무기가 있고 그밖에야 다른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사상동원을 하고나서 싸움을 련거퍼 했는데 그것이 은을 내더란 말입니다.**》라고 쓰시였다.

사상혁명은 혁명의 선행관이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지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가루만 흩날리던 전후복구건설시기 강선로동계급의 심장에 먼저 투쟁의 불을 지피시여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１９７０년대에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시여 온 나라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로 부글부글 끓게 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사상사업을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으로 여기시고 여기에 선차적힘을 넣어오시였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면서도 생기와 활력에 넘쳐있었고 우리 인민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존엄떨치게 되였다. 천리마대고조의 불길과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적돌파야말로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으로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오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원쑤들은 더욱 발악하고있으며 점령해야 할 목표도 대단히 높다. 그러나 모든 사상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앙양시켜 력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헤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령도사를 깊이 새기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갈 때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령도사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그 위력을 최대로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본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같은 병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약을 써야 고칠수 있는것처럼 사상사업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사상사업에서 공식화된 방법이나 만능의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각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는 사상사업은 그자체가 고도의 창조적인 사업이다. 사상은 강요할수도 없고 내려먹일수도 없다. 따라서 사상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자면 대중의 심리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수십성상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승리만을 안아오실수 있은것은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언제나 참신하게 해오신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사업은 그 하나하나가 다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명중포화였으며 도식과 틀이 없이 현실속에서 구체적정황과 조건에 맞게 진행된 령도예술의 귀감이였다. 로동자들의 기름묻은 손을 보배손이라고 뜨겁게 잡아주시고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시였으며 수천척지하막장에도 들어가시여 대중을 생산적앙양에로 고무하신분이 우리의 수령님과 장군님이시였다.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속생각까지 헤아려주시며 평범한 근로자들의 허물없는 친구, 자애로운 스승이 되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이 정신력의 승리의 력사로 수놓아지고 전체 인민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애국자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국가는 천만군민의 사상의 힘, 무한대한 정신력에 의하여 일떠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대중과 항상 어울리며 사상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진취적으로 진행하여 누구나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교과서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령도사는 우리 사상일군들이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할 만년재보이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령도사를 확고한 지침으로, 교과서로 삼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철학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시대의 아름다운 꽃들(1)

그 이름도 긍지높은 룡남산의 녀성혁명가들

김일성종합대학 녀성교육자들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고마운 조국의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녀성들속에는 강성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키워가는 녀성교육자들도 수없이 많다. 그들에게는 또 얼마나 긍지높은 삶의 이야기들이 간직되여있을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어 얼마전 룡남산의 녀성교육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기자: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에서 인재후비들을 키워나가는 녀성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이 남달리 크리라고 본다.

문학대학 교수 박사 김려숙: 세상에는 제나름대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녀성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의 녀성교육자들만큼 긍지스럽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녀성들은 없을것이다. 저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조국이 해방된 해에 태여났다고 하여 어릴 때부터 해방동이로 불리운 제가 룡남산의 높은 교단에 선 때로부터 어느덧 40여년이 흘러갔다. 한생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그 나날 수많은 제자들을 룡남산의 아들딸들로, 나라의 역군들로 키워오면서 저는 녀성으로서 누릴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빛내여왔다. 하기에 저는 녀성과 문학이라는 주제의 도서를 집필하여 녀성문제가 어떻게 로동당시대에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긍지높이 전하려고 한다.

수학부 박사 주현희: 몇년전부터 세계과학원 회원기구에 망라되여 학술교류활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저는 남다른 감정을 체험할수 있었다.

사실 수학이라는 학문은 녀성들에게는 힘에 부친 학문으로 인정되고있다. 그래서인지 외국의 벗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세계적인 수학자로 될수 있었는가고 놀라움을 표시하군 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누려온 값높은 삶에 대해 새삼스레 돌이켜보군 한다.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걸싸게 밀고나가는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품이 아니였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하기에 저만이 아닌 우리 학부의 녀성교육자들은 국제적으로 명망높은 과학기술출판물들에 실린 력학계의 카오스리론에 대한 연구론문과 같은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계속 달성함으로써 룡남산의 녀성교육자, 녀성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보란듯이 떨쳐가고있다.

기자: 룡남산의 녀성교육자라는 그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특출한 교육과학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하는 근본원천이 아니겠는가.

문학대학 박사 장명희: 옳은 말이다. 저는 자신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고저 수십년전부터 만화영화문학분야를 개척해왔다. 아마 나에게 룡남산의 딸, 김일성종합대학의 녀성교육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없었다면 그처럼 어려운 초행길을 오늘까지 걸어오지 못했을것이다.

저는 앞으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담당한 학생들을 종자와 주제가 독특하고 이야기줄거리가 재미나게 엮어진 만화영화문학들을 척척 창작할수 있는 인재후비들로 키우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생명과학부 교수 박사 김련화: 저의 가슴속에는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제가 개발한 미생물먹이첨가제를 보아주시며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정녕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지난 기간 집짐승의 증체률을 높이며 수의방역사업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미생물먹이첨가제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와 경험을 쌓을수 있었다.

우리 학부의 녀성교원, 녀성연구사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농사와 축산, 양어와 산림 등 여러 분야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기여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문학대학 박사 김희옥: 무릇 사람들은 교육자의 생은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속에서 흘러가는 보람찬 삶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앞서 성스러운 룡남산을 온 세상에 빛내여가는 녀성혁명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더욱 귀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빛내여나가고있다. 지난 15년동안 민족고전번역사업에서 제가 거둔 성과속에도 바로 그런 남다른 자부와 긍지가 깃들어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선군조선의 녀성혁명가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정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갈것이다. 그 길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고 다시 만나자는것을 약속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경철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와 녀성작가

한편의 소설이 오늘도 깊은 여운으로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있다.

녀성들의 운명과 생활에서 극적인 전환을 이룩한 력사적인 시대를 감명깊게 형상한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이다.

소설의 여운은 그 소설이 안고있는 사회정치적문제성에 대한 여운이기도 하다.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애독되는 이 소설이 안겨주는 참된 삶과 투쟁의 진리는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훌륭한 전통과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을 음미해보느라면 해방후 우리 조국땅에 긍지높이 울려퍼졌던 우리 녀성들의 새 운명의 노래 《녀성의 노래》의 구절구절이 가슴에 미쳐온다.

소설에서는 태양의 빛발과도 같은 김정숙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녀맹군들이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게 되는 과정과 어제날의 평범한 근로녀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존엄있는 인간으로, 땅의 주인, 인민의 대의원으로 성장하는 력사적인 화폭들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이 땅에서 녀성문제해결의 새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밝아왔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여운깊은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 대하여 알고싶어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안고 이 소설을 창작한 4.15문학창작단 작가 김영희동무와 자리를 같이하였다.

《새 조국건설시기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녀성들의 운명에서도 극적전환이 일어나던 격동적인 시대였습니다. 하기에 시내물같은 소설이 아니라 격류하는 시대처럼 폭이 크고 대하같은 거세찬 흐름으로 충만된 소설을 창작할 결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녀성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녀성중시사상과 새 조선건설시기의 력사적사실들에서 창작적흥분을 금할수 없었던 일들이며 우리 녀성들에게 광활한 앞길을 열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전하려는 마음으로 고심어린 창작의 낮과 밤을 이어가던 일들을 깊은 추억속에 들려주었다.

녀성작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녀성들의 행복한 삶의 이야기는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비록 머리에 흰서리를 얹었지만 또 한편의 우리 시대 《녀성의 노래》를 쓰고싶은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오늘도 계속되는 《녀성의 노래》, 그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우리의 귀전에 울려왔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속에 영원히 이어질 조선녀성들의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

그것은 어떤 책자우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생활속에, 긍지높은 삶과 투쟁으로 충만된 우리 녀성들의 오늘과 래일속에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마냥 후더워올랐다.

본사기자 공로혁

과학전선의 전렬에서

사랑과 정을 안고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 실장 김혜림동무와 지구환경정보연구소 박사 부교수 한철훈동무는 은정과학지구가 부러워하는 과학자부부이다. 사실 이들은 아기자기하게 마주앉아 부부간의 사랑과 정을 나눌 때가 드물다.

가사보다 국사를 중히 여기며 부부이기 전에 탐구의 길을 함께 걷는 혁명동지로 서로 의지하고 고무하면서 이들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안해로서,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김혜림동무의 심정은 늘 미안했다.

말 못하는 마음속사연을 따스한 손길은 사려깊이 헤아려주었다.

기념촬영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꽃다발을 드린 그날의 녀성과학자도,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다섯칸짜리 살림집의 안주인, 희한한 연풍과학자휴양소에 펼쳐진 행복한 《신혼생활》의 첫 《새색시》도 그리고 지난해 국가표창수여식에서 남편과 나란히 공훈과학자칭호를 수여받은 주인공도 바로 그였다.

남편의 눈가에 안해는 이렇게 비껴들었다. 누구보다 아름답고 현숙한 모습으로…

진정 그 고마운 손길은 어머니 우리 당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였다.

믿음을 안고

인생의 길은 멀어서 때로는 주저앉고싶을 때도 있다. 조선천연흑연개발교류사 박사 조일숙동무에게도 그런적이 있었다. 녀성이여서 더했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첨단수준의 천연흑연솔을 개발도입하기 위한 어려운 탐구의 길에 스스로 나선 그였지만 한때에는 여러가지 고충을 안고 연구기지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연구사업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당을 따르려는 한 녀성과학자의 깨끗한 량심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가 과학연구사업을 다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구목표와 원칙, 방법론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는 마침내 천연흑연솔분아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당당히 쥐였다.

일흔이 된 오늘도 그는 최첨단돌파전에서 로당익장하고있다.

과학적신념이 확고한 불굴의 녀성과학자로 조국과 세계앞에 떳떳이 나섰다.

그 신념의 기둥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이다.

그렇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과학전선에는 이처럼 위대한 사랑과 정과 믿음을 간직한 조선의 수많은 녀성과학자들도 서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수필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생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는것을 장려하고있습니다.》

3.8국제부녀절을 앞둔 요즘 나에게는 모성영웅들에 대한 생각이 자꾸 갈마든다.

지난 2월말 출장길에서 만났던 원산시 방하산동에서 사는 모성영웅 리병희녀성은 설명절날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보니 지나온 나날이 다시금 생각났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집온 해에 맏딸을 낳은데 이어 둘째딸을 본 리병희녀성은 세번째만에는 그렇게도 바라던 떡돌같은 아들을 낳았다. 결혼후 화목한 정이 흘러넘친 그의 가정에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웃음도 함께 늘어났다.

리병희녀성은 행복했다.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는 재미가 있었고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아 행복에 넘친 삶을 한껏 누리고싶은 욕망이 움터올랐다.

그런 마음을 안고 리병희녀성은 자식들을 련이어 낳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저도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하였고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머금군 하였다. 그것은 차츰 자식들이 늘어감에 따라 자주 그의 집을 찾군 하는 사람들때문이였다. 의료일군들과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방하산동의 일군들이 수시로 리병희녀성의 가정을 찾아왔다. 찾아와서는 아이들의 건강상태도 알아보고 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는가 세심히 물어주기도 하였다. 영웅의 집도 아니고 나라앞에 큰 공을 세운것도 아니며 단지 특별한것이 있다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운다는 그것이 전부인 자기들의 가정을 그처럼 극진히 돌봐주는 사람들앞에서 리병희녀성은 어머니라는 부름의 참뜻을 깊이 새겨보군 하였다.

그러한 리병희녀성에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이 차례졌다. 2012년 11월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영광스럽게도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던것이다. 그날 리병희녀성은 자기의 앞가슴에 빛나는 영웅메달에 뜨거운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고 한다.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것이 한가정의 행복이라고만 생각했던 그였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의 소행을 영웅적위훈을 세운 사람들과 꼭같은 높이에 올려세워준것이였다.

《저는 이렇게 모성영웅이 되였습니다.》

리병희녀성이 눈물속에 긍지높이 터치던 그 말이 다시금 나의 귀전에 울린다.

모성영웅, 아마 그런 말은 우리 나라에만 있을것이다. 아들딸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떠받들어주며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는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그 품에서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어머니의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고있는것인가.

자식 한명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들어서 어머니라 불렀다는 그 부름, 열두자락 치마폭이 눈물에 절도록 자식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되였던 이 나라 녀성들이 오늘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행복속에, 영광속에 자식들을 키우고있는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 고마운 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 총대감, 영웅감으로 키우려는것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제일 큰 소원으로, 행복으로 되고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행복, 그것은 끝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어머니의 권리와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녀성들만이 느낄수 있는 기쁨이고 긍지이며 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듬는 나의 마음속에서는 너를 낳은 엄마도 어머니라 부른다는 우리 당에 대한 찬가가 울리고있었다.

본사기자 방경찬

사랑의 저울

3.8국제부녀절을 앞둔 때여서 그런지 더욱 돋보이고 긍지에 넘쳐있는 우리 녀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가슴뭉클 안겨드는 이야기가 있다. 얼마전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오며 눈시울 후덥게 새기였던 화폭이 눈앞에 떠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그날 천지개벽된 공장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던 우리 원수님께서는 신발제품들이 전시되여있는 곳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손수 골라드신 녀자구두를 곁에 있던 저울우에 올려놓으시였다.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을 바라보시며 인민들에게 질좋고 가벼운 신발을 안겨주게 되였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날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던가. 특히 우리 녀성들의 격정은 더욱 컸다.

신발은 녀성들이 애호하는 생활필수품들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신발을 신게 될 주인공들도 그 색갈이나 형태에는 신경을 써도 무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는다.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우리 원수님께서만이 녀성들의 신발의 무게까지 헤아려주시였다. 우리 녀성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녀성들이 신고다니는 문양고운 양말에도,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화장품에도 다심한 그 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그날의 저울, 나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물체의 무게를 다는 기구로만 안겨오지 않았다.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는 사랑의 저울, 그 저울에 얼마나 크나큰 은정들이 담겨지군 했던가. 우리 녀성들이 누리는 크나큰 행복의 무게가 그 저울에 실려있다.

가벼운 구두를 손에 드시고 기뻐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에 삼삼 어려온다.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작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넘쳐나던 행복의 무게, 고마움의 무게는 얼마나 컸던가.

그렇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저울로도 잴수 없는 축복받은 조선녀성들의 크고 소중한 행복의 무게가 실린 사랑의 저울이였다.

조향미

방문기 녀성체육영웅과 금메달

모란봉체육단 유술책임감독 계순희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계순희동무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체육영웅이다. 그의 이름은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고 선군조선 녀성체육인의 존엄과 기개를 떨친 계순희동무는 지금 어떤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을가. 아마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3.8절을 특색있게 장식하는 하많은 이야기들중의 하나로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지난 일요일 계순희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체육영웅의 집 말입니까? 10층 4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하는 말이였다. 동네에서도 녀성체육영웅으로 떠받들리우는 계순희동무의 긍지높은 삶의 일단이 엿보여 우리의 마음은 즐거워졌다.

계순희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아주며 집안으로 이끌었다. 구석구석 알뜰한 주부의 손길이 느껴지는 집안에서 제일먼저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그가 첫 올림픽우승을 쟁취한 때로부터 세계유술선수권대회 4련승보유자로 성장해온 나날에 받은 컵과 메달들이였다.

《저 하나하나의 금메달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지군 합니다.》

계순희동무가 얼굴에 추억의 빛을 띠우며 하는 말이였다. 그는 국제경기들에서 맞다드는 선수들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던 나날의 이야기를 깊은 감회속에 들려주었다. 비록 유술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금시 그 시절의 패기와 열정이 되살아나는듯 싶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계순희동무의 남편 역시 어느한 체육단의 유술책임감독으로 일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계순희동무는 남편이 훈련을 위해 출장중이라고, 남편이 있었으면 유술이야기로 시간가는줄 몰랐을것이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정말 행복한 유술감독부부였다. 긍지가 이만저만 아니겠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계순희동무의 눈길은 집벽면에 정히 모신 영광의 기념사진들에로 향하였다.

선군시대영웅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큰 대회들에 대표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어버이장군님, 계순희동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에는 결혼상까지 보내주시며 따뜻이 축복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평범한 가정에서 나서 자란 제가 오늘처럼 온 나라가 다 알고 세계가 아는 녀성체육인이 될수 있었던것은 우리 장군님과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 품이 아니였다면…》

말끝을 채 맺지 못하는 계순희동무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의 절정에 올라 고마움에 눈물짓는 녀성체육영웅, 그가 받은 금메달들이 더욱 눈부시게 우리의 눈가에 어려왔다.

그것은 따사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며 행복의 절정에 높이높이 오르는 우리 녀성체육인들의 축복받은 삶의 증표였다.

깊어지는 생각을 안고 밖으로 나선 우리의 귀가에 《축복받은 나의 삶》의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계순희동무의 집창가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노래, 긍지높은 삶의 찬가처럼 여운깊이 들려왔다.

본사기자 전철호

계순희동무(가운데)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10월의 환희를 그려보며 즐겁게 맞이한 정월대보름명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속에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민속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였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북단 삼지연과 대홍단, 공업도시 함흥과 분계연선의 개성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집집마다에서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앉아 오곡밥을 비롯한 민족음식들을 들고 여러가지 유희오락으로 흥을 돋구었다.

김일성광장, 평양체육관광장, 개선문광장 등 수도의 광장들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의 단심줄놀이, 줄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띄우기를 비롯한 민속놀이가 유쾌하게 진행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각지의 급양봉사망들도 민속명절을 맞는 사람들로 흥성거리였다.

옥류관과 청류관, 문수각, 창광음식점거리의 식당들을 비롯한 수도의 급양봉사망들을 찾은 손님들은 세상에 이름난 평양랭면, 약밥, 록두지짐과 같은 특색있는 음식봉사를 받으며 명절을 즐기였다.

사리원시의 민속거리 식당들과 경암각 등 이채를 띤 지방의 봉사망들에서도 민족의 향취가 끝없이 넘쳐흘렀다.

어둠이 깃들자 수도의 모란봉과 대동강반, 녕변의 약산동대를 비롯한 각지의 명승지들에서 달맞이풍경이 펼쳐졌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는데 모든것이 지향되고 아낌없이 베풀어지는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사람들모두는 대보름달을 뜨거운 감회속에 바라보았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비약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더욱 휘황할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간직되여있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스리랑카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계춘영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월 26일 마이트리팔라 씨리쎄나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이트리팔라 씨리쎄나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두 나라는 오랜 친선관계를 맺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근면하고 용감한 인민이다, 조선은 강력한 과학기술잠재력을 보유하고있다,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조가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리랑카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하루빨리 해소되고 조선의 통일이 화해와 협력,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일관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고 언급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산골학교들의 면모가 달라져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후대들에게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량림군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학교별후원단체들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후원사업을 학급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동시에 단계별목표들을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산골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해나갈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직접 한개 단위를 맡아 시범을 창조하고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학교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앞서나가는 모범적인 단위들을 내세우고 경험을 널리 소개하면서 경쟁열의를 불러일으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주, 월별로 진행되는 평가 및 총화사업과 경쟁도표, 직관선전물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분발시키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군에서는 수천㎥의 뗄나무를 해결하고 여러동의 교원살림집건설을 끝냈다. 이와 함께 수백㎡에 달하는 여러 학교들의 교재원꾸리기를 높은 수준에서 완료하였으며 수많은 교실, 사무실, 실험실, 실습실들을 새로 꾸리고 근 300종의 8 000여점에 달하는 실험실습기재들을 갖추어놓았다.

또한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여 수십대의 콤퓨터와 수백대의 액정텔레비죤과 록화기를 마련하였으며 많은 량의 학교건설 및 보수용자재를 해결하였다.

지금 군에서는 군안의 모든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과 체육기자재들을 기준대로 구비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지혁철

분별을 잃고 미쳐날뛰는 전쟁부나비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천만군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보복의지

탁월한 선군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증유의 반미총결사전으로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끝끝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섰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내외호전광들이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며 그것을 토대로 4월에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작성하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그 실행의 주력은 《북핵 및 미싸일제거》와 《북지역에서 특별민사작전》을 맡고있다고 하는 남조선 미국련합사단이다. 더는 숨길수도 감출수도 없는것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적본성이다.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여지없이 사라져버렸다. 정전협정도 휴지장으로 되여버린지 오랜 상태에서 이제 남은것은 불과 불, 핵과 핵의 대결뿐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강경대응조치의 실행에 나서게 될것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이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맛보게 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가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을 가하며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해나서는것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기상과 담력을 그대로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고 배짱이다. 빈말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지상과 해상, 수중과 공중, 싸이버공간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지금 목표물들을 겨누고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의 무분별한 전쟁소동을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제압, 분쇄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은 더욱더 횡포무도해지고있다. 정초부터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우리 공화국에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는것으로 대결의 막을 올렸다. 지어 우리 공화국이 《시간이 지나면 붕괴》될것이라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우리를 《최대의 적수》로 규정하고 무력제압을 통해 《결정적으로 승리》한다는것을 선포한데 이어 《적극적인 옥죄기전략》이니, 《제한적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준비》니 하는 폭언을 거리낌없이 내뱉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날강도적야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금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야망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보다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련속적으로 감행되게 될 훈련들이 언제, 어느 시각에 침략전쟁으로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조성된 사태는 적대세력의 침략적도전을 무적의 힘으로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에게 진짜총대맛,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고 세기를 이어오며 쌓이고쌓인 피맺힌 한을 속시원히 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선택이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무서운 공격능력과 철통같은 방어수단을 다 갖춘 최정예강군이다. 우리는 적들의 본거지를 순간에 불마당질해버릴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백두산혁명강군은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임의의 전쟁과 작전, 전투에도 다 대응할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등이 벌어진 화력진지들마다에서 련이어 울린 백두산혁명강군의 명중포성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내외호전광들에 대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 보복일념의 폭발이다.

우리는 미국에 침략적인 대외정책, 특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한두번만 충고하지 않았다.

미국이 우리의 선의와 아량,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분별없이 놀아댄다면 우리 군대는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것이다. 판가리결전이 개시되면 제일먼저 녹아나게 될것은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과 그 기지들이다.

대양건너에 있는 미국본토는 안전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 침략과 도발의 원흉, 흉악한 강도의 무리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고 건드린다면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참변을 악의 총본산인 미국본토에서 맛보게 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의 확고한 의지이다.

괴뢰호전광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는 미친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들이 미국에 계속 추종하며 군사적대결의 길로 나가는것은 남조선에 몸서리치는 재난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연평도의 불바다같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단호한 군사적행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 남조선전역이 완전초토화될것이다.

미국의 식민지노복, 전쟁머슴군인 남조선괴뢰들은 상전의 침략전쟁도발책동에 수십만의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내몰고 전령토와 령공, 령해를 모조리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군대의 보복타격의 파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의 힘을 빌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망상하면서 합동군사연습에 가담해나선것이야말로 상전과 함께 파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고 미련한짓이다.

괴뢰패당이 그 무슨 《신형무기도입》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위대한 사상과 신념으로 만장약된 백두산혁명강군앞에서는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한다. 첨단군사과학기술을 자랑하는 그 어떤 신형무기도 우리의 섬멸적타격앞에서는 파고철더미에 불과하다. 괴뢰패당은 우리의 군사적행동이 그 어떤 허세나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것이며 이제 남은것은 도발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징벌뿐이라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는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다. 자기의 존엄, 자기의 제도를 해치려는 원쑤들을 추호도 용서한적이 없는 백두산총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다시는 선불질을 못하게, 다시는 우리 조국강토를 넘겨다보지 못하게 원쑤들의 아성을 재가루도 남지 않게 죽탕쳐버릴것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과 다른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적들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격멸소탕된다는것이다.

불과 불이 오가는 최후대결전에서의 승리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철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전략전술을 지니신 선군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승리는 우리의 영원한 전통이며 수치와 패망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차례진 숙명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다져온 전쟁억제력이 얼마나 위력한것인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무주고혼의 신세가 되고말것이다.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신성한 조국강토를 넘겨다보는 전쟁미치광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불의 세례를 안겨 조국통일대전을 최후의 승리로 결속할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은 우리의 최후경고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심 철 영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중지하라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4일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견결히 단죄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기동전개된 미제침략군의 륙, 해, 공군타격집단들과 수십만에 달하는 괴뢰군병력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랄리아와 카나다를 비롯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동원하여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공화국의 수뇌부 《제거》와 《평양점령》을 목표로 감행되는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이라고 규탄하였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간절한 념원을 짓밟고 사랑하는 조국땅에 기어이 핵전쟁참화를 몰아오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연습을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이름으로 견결히 단죄규탄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미국과 그 주구인 남조선괴뢰패당이 야말로 조선반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조장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번영에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가 있다는것을 누구보다도 가슴에 깊이 새기고있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발걸음을 같이하여 미국과 괴뢰역적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주체조국을 견결히 옹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분연히 떨쳐나설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은 세계의 량심과 온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속에 더더욱 고립되고있는 저들의 신세를 똑똑히 알고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와 사대매국노들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합세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

5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가 서울 종로구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한 강연회장에서 남조선시민단체 성원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 마당》 대표 김기종은 이날 아침 강연회장에 나타나 강연준비를 하고있는 리퍼트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되여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웨치며 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다.

이로 하여 리퍼트는 얼굴과 손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 두차례의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김기종은 지난 2010년 7월에도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그 무슨 《공동번영》에 대해 떠드는 남조선주재 일본대사에게 벽돌세례로 항거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괴뢰경찰에 련행되여 끌려가면서도 그는 전쟁반대와 미국남조선합동군사훈련반대구호를 계속 웨쳤다.

남조선의 《KBS》, 《CBS》, 《MBC》 방송을 비롯한 각 언론들이 이 징벌사건을 보도하였고 미국대사가 피투성이가 되여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이 텔레비죤을 통해 방영되였다.

미국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속보로 전하고있다. 미국 CNN방송은 김기종이 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웨쳤다는 남조선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반미감정에 의한것》이라고 밝혔다. 괴뢰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미국관련시설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있다고 한다.

반미기운이 높아가고있는 속에 벌어진 이 사건은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이다.

북침전쟁연습중지, 독재《정권》퇴진을 주장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2월 26일 목요집회를 가지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와 독재《정권》퇴진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규모와 내용으로 볼 때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군사연습이 북에 대한 《선제타격》과 《점령》을 노린 《작전계획 5027》에 기인한것으로 침략적성격은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까밝혔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민족전체가 화를 당하게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민족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합동군사연습은 즉시 중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인권재단》의 어중이떠중이들은 북을 비난하는 삐라를 뿌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남북사이 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동포들은 강제추방당하는 사태가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현 《정권》이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주장한다고 하여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를 강제폐간시켰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불법행위로 당선된 박근혜는 력대 독재《정권》들의 비참한 말로를 되새겨보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소탕해버리자

호전광들은 오산하지 말라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한사코 도전하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포성을 요란히 터친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격의 우둔한 망동이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백두산장군의 령도따라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과연 당해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산이면 이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미제가 이 땅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이번에는 아예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조국을 둘로 갈라놓고 지금껏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시각은 왔다.

우리들은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미제와의 최후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우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황해남도려단안의 전체 돌격대원들은 원쑤격멸의 시각이 닥쳐오고있는 지금 복수의 맹세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만약 적들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용약 전선으로 달려나가 원쑤들을 씨도 없이 불마당질해버릴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배심든든하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황해남도려단 려단장 김 명 석

미제의 멸망을 앞당기는 심정으로

정초부터 극도의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고취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긴장완화의 흐름에 도전해나서던 미제와 괴뢰역적무리들은 지금 북침망상에 사로잡혀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에 미쳐날뛰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부대들의 타격, 도하, 점령훈련과 신형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 등은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넘보며 침략의 이발을 드러낸 가증스러운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미증유의 반미총결사전에 나선 천만군민에게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미국놈들때문에 우리 민족이 70년세월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고통을 겪었는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 삼천리강토에 부강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웠을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였을것이다.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준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까지 터치려고 발광하고있으니 이 철천지원쑤들을 마지막한놈까지 소탕하기 전에는 발편잠을 잘것 같지 않다. 당장이라도 떨쳐일어나 미국놈들의 마지막숨통을 조이고 속시원히 짓뭉개고싶다.

미제와 괴뢰들이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어림도 없다.

우리는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더 많은 연구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미제의 멸망을 앞당기고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교원 전 광 혁

남은것은 최후결전뿐이다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이 아마도 이제는 살기가 싫은 모양이다.

대양건너 제 소굴에 숨어있어도 판가리결전을 위해 다지고다져온 우리 군대의 강위력한 타격을 피하지 못할 판에 우리의 코앞에까지 찾아와 날 죽여주시오 하니 어찌 그렇다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미쳐날뛰며 허세를 부리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루강아지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미련한 망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철천지원쑤 미제에게 기어이 종국적멸망을 안기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껏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왔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승리의 신심이 넘쳐나고있으며 미제와 괴뢰패당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빛나게 결속하고야말 멸적의 의지가 용솟음치고있다.

미제와 괴뢰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며 도전해온 이상 우리의 선택도 명백하다. 이제 남은것은 부단히 축적하여온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총폭발시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격멸소탕하는 최후결전뿐이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중앙계량과학연구소 연구사 김 성 천

모략과 음모의 총본산인 괴뢰정보원은 즉각 해체되여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집권자가 온갖 모략과 악의 소굴인 괴뢰정보원에 의거하여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5일 이를 폭로하는 보도 제108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괴뢰정보원이 제 세상을 만난듯이 특세를 부리며 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특히 박근혜《정권》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온갖 정치적 모략사건들을 련이어 조작해내며 《유신》독재《정권》시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판을 치며 놀아대고있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괴뢰정보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때 현 집권자의 당선을 위해 인터네트로 야당후보자를 깎아내리는 불법무법의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에 매달리다 못해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을 조작하고 담화록을 전면공개하는 특대 정치적음해행위를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통일애국세력,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부정선거사건과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합법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 등 《종북》소동에 미쳐날뛰였다.

괴뢰정보원이 고문과 회유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유신》독재시기 날아가는 새도 떨구고 검은것도 희게 만들었다는 중앙정보부의 후예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얼마전에는 2009년 당시 로무현의 불법자금사건을 조작하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류포시켜 그를 끝끝내 죽음에로 몰아간 장본인도 다름아닌 괴뢰정보원깡패들이라는것이 밝혀져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오죽하면 지금 남조선에서 괴뢰정보원을 가리켜 《권》유지를 위해 그 어떤 모략사건도 서슴지 않고 조작하는 《국가조작원》, 싸이버테로와 도청을 일삼는 《정보테로원》, 《도청감시원》, 수뇌회담담화록마저 공개시키는 《불법무도원》, 반공화국《인권》날조극과 유인랍치에 미쳐날뛰는 《인권모략원》, 《유인랍치원》(일명 《유치원》)이라고 규탄하고있겠는가.

실로 괴뢰정보원의 횡포한 전횡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은 과거 《유신》독재《정권》시기처럼 정보원깡패들이 독판치는 무법천지로, 히틀러의 나치스때도 무색케 할 인권의 불모지로 화하고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집권자가 최근 이 모든 모략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괴뢰정보원관계자들을 처벌할 대신 오히려 감싸주고있을뿐아니라 정보원 원장을 하던 리병기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끌어들인것이다.

리병기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괴뢰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 부장 특별보좌관, 2차장 등 요직에 들어박혀 수많은 모략사건들을 조작하였으며 특히 배신자, 변절자들을 유인매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놀음을 막후에서 총지휘한 음모가로 악명을 떨친자이다.

놈은 또한 《대화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에 서명한 남조선집권자들을 《리적》으로 모독한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신자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이러한 자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올려앉힌것은 제 애비처럼 정보원에 의거하여 정보통치, 공안통치, 공포통치로 《유신》독재와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더욱 매달리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남조선이 파쑈와 폭압이 더욱 판을 치는 암흑천지로 전락되고 북남관계가 보다 엄중한 파국에 처하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모략과 음모, 온갖 악의 소굴인 괴뢰정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의 민주화도 북남관계개선도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파쑈와 대결광란을 몰아오는 괴뢰정보원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정보원에 의거하여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집권안정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것은 없다.

정치적모략과 파쑈독재를 일삼은자들은 례외없이 파멸을 면치 못하였다.

중앙정보부와 같은 모략기구들에 의지하여 파쑈통치에 매달리다가 바로 그 중앙정보부 심복졸개의 총에 종말을 고한 《유신》독재자의 비극적인 말로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민심을 거역하고 대세에 역행하여 정보원에 매달리다가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민심의 비난만 자아낸 개각놀음

얼마전 괴뢰집권자가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무총리》와 몇몇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놀음을 벌리였다.

그런데 《전문가》, 《적임자》라는 감투를 씌워 《총리》, 장관으로 내세운자들이 하나같이 민심의 배격을 받는자들이여서 보수패당은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있다.

그로 하여 청와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는것은 물론이다.

이미 부정부패에 이골이 난 리완구를 《총리》후보로 내세웠던 남조선집권자는 지난 2월 17일 괴뢰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후보도 발표하였다.

괴뢰통일부 장관후보로는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홍용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인 유일호, 유기준이 각각 선정되였다. 혹시나 하고 지켜보던 남조선 각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그 나물에 그 밥》, 《실망만 안겨준 2.17개각》 등으로 비난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현 집권자의 이번 개각에 대한 민심의 평은 완전락제이다. 그럴수밖에 없다.

괴뢰통일부 장관후보를 놓고보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류길재에 이어 이번에 장관후보로 된 인물도 《유신》독재자와 련관되여있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류길재의 아버지는 5.16군사쿠데타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육고문을 지낸자이다. 그는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작성 등으로 《유신》독재자의 반공화국, 반통일교육정책수립에서 관건적역할을 했다고 한다. 류길재가 통일부 장관의 벙거지를 쓰고 반통일을 일삼으며 현 북남관계파국에 한몫 단단히 한데는 이러루한 사연이 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하여 통일부 장관후보로 나선 홍용표 역시 《유신정권》하에서 괴뢰륙군참모총장과 《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 국방장관까지 한 서종철의 사위이다. 서종철은 5.16군사쿠데타 당시 《유신》독재자가 지휘소로 썼던 6관구의 사령관이였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가 이번 개각놀음에 우려를 표시하는것은 결코 이때문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깔려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내각 30%가 친박의원, 개각의 암호문은 〈장악…〉》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박근혜가 단행한 소폭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친박계의 현역의원들을 대대적으로 내각에 끌어들인 점이다. 청와대의 내각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국무총리〉와 장관후보로 된 5명중 3명이 친박계현역의원이다. 통합과는 거리가 먼 개각이다.》

집권자의 이번 개각과 관련하여서는 《친박계의원내각제》라는 비난까지 터져나오고있다.

야당인 새 정치민주련합은 집권자가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개각놀음을 벌린데 대해 《점점 높아가는 친박산성》이라는 표현으로 조소하였다.

정의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쇄신은커녕 측근들을 청와대뿐아니라 《정부》 부, 처에까지 박아넣으려는것이라고 평하면서 이제는 《민중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의 이름을 지워야 할 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개각놀음도 괴뢰집권자의 독단과 전횡, 위선의 극치였다. 이로써 철저한 개각으로 남조선의 정치, 사회풍토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호통치던 현 집권자의 장담은 한갖 신기루에 불과하였다.

현 괴뢰집권자가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독재통치에 매달리는 한 남조선의 정국혼란과 보수패당의 집권위기는 절대로 가실수 없다.

본사기자 리 효 진

국제대사령 괴뢰당국의 반인권적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국제대사령 남조선지부가 2월 2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당국의 반인권적 탄압책동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간 남조선에서 인권실태가 전반적으로 후퇴하였다.》고 밝혔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리석기를 비롯한 여러명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는 등 《보안법》이 자의대로 적용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 《정부》가 계속 《보안법》을 람용하여 진보세력을 위협하고 구금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남조선에서 로동조합의 활동이 억제당하고있는데 대해서와 장제로동이나 다름없는 렬악한 로동조건에 처한 이주민로동자들의 인권문제, 가혹행위로 사망자까지 빚어지고있는 괴뢰군부내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폭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국가안전보장법》이라는것을 새롭게 제정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현 일본집권자가 그 초안을 자민당과 공명당협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나 국회의 승인이 없이도 임의의 시각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결정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또 동맹국에 대한 지원범위도 한 나라로부터 여러 나라로, 일반물자로부터 무기나 탄약 등으로 확대한다는것이다.

머지않아 이 초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정식 법으로 채택될것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이 《국가안전보장법》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리유에 대해 《국가안전》과 재외일본인구출을 위한것이라는 판에 박은 설명을 달고있다.

이것은 한갖 기만이며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평화국가》의 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군국주의국가, 침략국가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당한 패배의 앙갚음을 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것은 일본의 정책적목표이며 전략이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야금야금 제거해왔다.

력대 일본정권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현 집권세력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극성을 부리고있다.

집권초기부터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느니,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느니 뭐니 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런가하면 집단적자위권행사가 헌법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지어 일본집권자는 헌법개정을 반대하면 국회해산도 강행하겠다는 소리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평화헌법》에서 핵심으로 되는 제9조의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라는 문구에서 《영원히》를,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하지 않는다.》에서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며》를 삭제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실현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어떻게 하나 헌법을 뜯어고쳐 재침의 길에 합법적으로 나설수 있는 법적기초를 마련하자는것이였다.

일본집권세력의 시도는 국내외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집권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야망실현에 장애로 되고있다.

현재 《자위대》의 활동범위나 지원대상은 형식상으로나마 엄격히 제한되여있다.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활동범위는 《주변사태법》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고있다. 《주변사태법》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국한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국가안전보장법》을 통해 극복해보려 하고있다. 새로운 《국가안전보장법》채택으로 현행헌법을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만들어 《자위대》의 해외파견이나 그 활동범위확대가 공식적으로 법에 기초한것처럼 만들자는것이다. 나아가서 현행헌법마저 완전히 개악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지난 세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떠들며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재침야망에 환장이 되여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무분별한 망동을 부리고있다.

앞으로 일본은 《국가안전보장법》이 채택되면 그것을 코에 걸고 집권자의 결심에 따라 해외의 임의의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결과 《자위대》는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개편되였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자위대》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은 고도로 높아졌으며 무장장비는 공격을 목적으로 더욱 현대화되고 갱신되고있다.

해상《자위대》만 보아도 주력함선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대형화, 공격화, 정보화되고있다. 공격능력이 강한 새로운 함선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다. 해상《자위대》를 강화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과거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해상무력을 강화하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질적우세를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의 수준에 못지 않게 준비되고있다. 초음속순항비행능력과 높은 기동성, 스텔스성능과 종합전자체계를 다 갖춘 전략공격형전투기를 갖추기 위한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륙상《자위대》는 공중과 지상의 일체화를 중시하면서 기동능력과 화력타격능력을 강화하고있다. 땅크를 비롯한 무장장비들을 임의의 작전지역에 수송전개하기 위하여 중량을 가볍게 하면서 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발하고있다.

언제인가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일본의 무력상태에 대해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륙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륙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고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이 입만 벌리면 저들의 군사전략이 《방어위주》의 군사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위대》무력이 앞으로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하여 집권자의 결심에 따라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해외침략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국가안전보장법》제정놀음은 아시아지역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확대강화된 침략무력을 믿고 어벌이 커져 이제는 《국가안전》을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진출과 활동범위확대를 법화하고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국가안전보장법》에서 주변사태라는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아시아 전지역에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 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은 이제는 가설이 아니라 현실로 되였다. 일본은 극히 위험한 침략세력, 전쟁세력으로 되였다. 《국가안전보장법》을 리용하여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현 집권세력의 책동은 아시아지역 인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은 과거에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며 아시아를 란도질하고 피비린 살륙에 미쳐날뛴 죄많은 력사를 가지고있다. 이러한 일본이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죄악을 저지르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 20세기 전반기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는 아시아인민들은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을 꿰뚫어보고 그에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리 학 남

인디아신문들 글 게재

기쁨을 찾으신분 인민의 웃음에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인디아신문들이 글을 게재하였다.

《뉴델리 타임스》 2월 12일부는 《김정일령도자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을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려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소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석수떨어지는 갱막장에도 서슴없이 들어가시였고 험한 논뚝길도 마다하지 않으시였다.

정말이지 인민이 살고 일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찾아가시였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것, 이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자신의 소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내세우신 목표였다.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수록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신분이 바로 김정일령도자이시였다.

《어웨이킹》 2월 9일부는 《일심단결의 핵심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고 선군의 기치밑에 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에는 가장 뜨겁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였으며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기둥, 주력군으로, 조선사회의 핵심력량으로 준비되게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사회의 밑뿌리인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하시였다.

그이의 뜻을 받들어 인민군대는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들었다.

이런 군대를 인민이 한마음으로 원호하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군민일치는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여 보다 승화되고있다.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나라 외무상

제네바군축회의에서 연설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3일 제네바군축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지금 전반적인 군축과정은 성원국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침체상태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일부 나라들의 전횡과 이중적태도가 성원국들의 호상신뢰에 의한 군축협상이 아니라 불신에 기초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정반대의 후과를 초래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미 지난 세기 군축회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체결되였지만 핵군축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결과 이제는 세계의 핵지도가 크게 달라졌으며 언론계나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군축회의가 이제 더이상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핵군축문제는 유엔의 의제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가장 청소한 핵보유국이 서로 교전상태에서 날카롭게 대치되여있는 핵화약고이다.

조선반도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나올 때 기성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과의 전시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은 1985년에 이 조약에 가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핵불사용담보를 제공할 대신 종래부터 가해오던 핵위협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 가해지는 미국의 핵위협은 잠재적이고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것이다. 한해에도 몇차례씩 전략핵폭격기들이 미국본토나 괌도로부터 무착륙비행으로 괌장 조선반도상공에 진입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고있다. 항공모함과 핵미싸일잠수함들이 끊임없이 조선반도수역에 들어와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핵전쟁연습에 참가하고있다.

지난 2일 남조선전역에서 시작된 합동군사연습은 그 어느때보다도 도발적성격이 강하며 그로 인하여 전쟁의 불꽃이 튈수 있는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하수인인 남조선이 지게 될것이다.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도 저들만은 살아남아보려고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는데 극성을 부리고있다.

일방의 위협은 타방의 대응을 초래하기마련이다.

한두해도 아니고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으며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미국을 억제할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도 가할수 있는 힘이 있다.

미국은 저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원자탄으로 위협하던 시대가 영원히 지나갔으며 군사적위협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준엄한 현실은 세계의 핵군축과정이 뒤걸음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이 결정될것이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도 크게 달라졌지만 유독 조선민족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조선이 분렬되여있는 한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지역의 안전보장은 기대할수 없다.

조선이 통일되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을 성취하는것으로 될뿐아니라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좌충우돌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념원을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정책적목표와 군축회의의 사명은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군축회의가 조선반도정세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정세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성원을 보내주리라고 확신한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소개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2월 22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홈페지는 《위인칭송의 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된 일본의 원예학자 가모 모도데루는 자기가 새로 육종한 꽃을 김정일화로 명명하고 주체77(1988)년에 그이께 삼가 올렸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전문재배하는 온실들이 개관되였다.

또한 북유럽김정일화협회, 아메리카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일본 김정일화애호회 등이 조직되였다.

저명한 인사들을 망라하고있는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는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 지부를 두고 불멸의 꽃들을 광범히 보급하는 국제적인 단체이다.

김정일화는 국제원예학회에서 베고니아과의 새로운 품종으로 공식 등록되였으며 국제화초전시회와 세계원예박람회들에서 여러차례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따바레 라몬 바스께스

우루과이대통령으로 취임

우루과이에서 따바레 라몬 바스께스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일 국회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그는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보건,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꾸바정부 《테로지원국》명단에서의 삭제를 미국에 요구

꾸바외무성 미국총국장이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이것은 두 나라사이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시급히 이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 진

인도네시아의 북부쑬라웨씨주에서 1일 리히터척도로 5.6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그 부근 바다물밑 10km 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홍역환자 발생

스웨리예에서 최근 홍역환자가 발생하였다.

2월 28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도이췰란드를 다녀온 한 주민이 홍역에 걸린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 대한 제재조치 선포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2월 28일 반미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정부관리들의 베네수엘라입국을 금지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정부가 지난 시기 테로범죄를 감행한 전 미국대통령 부쉬와 부대통령 체이니, 일부 국회상원 의원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정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국제법에 따른 제재조치라고 하면서 그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립장 천명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가 1일 남부 코르도판주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근 주에서 무장충돌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주민들속에 분렬을 야기시키고 지역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에 대화와 협상 등을 통하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로씨야에서

로씨야가 2월 27일 쁠레쎄쯔크우주발사장에서 군사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케트 《쏘유즈-2.1б》를 쏴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

이것은 올해에 들어와 쁠레쎄쯔크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첫 운반로케트의 발사였다고 한다.

항공우주방어군 대변인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에서

이란국가복리리사회 위원장 아크바르 하쉐미 라프산쟈니가 1일 이딸리아외무상과의 상봉석상에서 평화적핵권리를 수호해나갈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매개 나라들이 자기의 선진기술을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리용하는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떤 렬강도 이란의 합법적인 평화적핵에 네르기리용권리를 빼앗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인디아에서

인디아에서 올해 3월말에 끝나는 현 회계년도에 경제가 8% 장성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2월 2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로씨야와 끼쁘로스가 2월 25일 군사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확대할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한편 에짚트와 요르단이 2월 26일 반테로투쟁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캄보쟈와 라오스가 2일 국방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이에 앞서 2월 27일 케니아와 알제리는 반테로투쟁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간첩들 체포

베네수엘라에서 최근 간첩행위를 감행한 미국인들을 체포하였다.

2월 28일 이 나라 대통령은 현재 따치라주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된 미국비행기조종사에 대한 심문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네수엘라를 반대하여 첩보활동을 벌리던 다른 미국인들도 구금되였다고 한다.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위조상품 성행

이딸리아에서 위조상품이 성행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2월 27일 이 나라 경찰당국은 남부지역에서만도 8의 가짜올리브기름이 압수되였다고 밝혔다.

범죄반대투쟁

메히꼬에서 범죄반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2월 27일 이 나라 경찰은 미초아칸주에서 마약밀매, 랍치, 살인 등 범죄를 일삼던 조직을 적발하고 그 우두머리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

전염병에 의한 피해

최근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조류독감비루스가 급속히 퍼지고있어 사회적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조류독감비루스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금목장들에서 큰 피해를 입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1월 한달동안에 중국의 어느 한 성에서 30명의 조류독감환자가 발생하고 1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여 목숨을 잃었다.

일본의 어느 한 닭사육장에서는 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 닭들이 발견되였다. 하여 약 4만 2 000마리의 닭들을 전부 처분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 농장의 닭들에서도 독성이 강한 조류독감비루스가 확인되여 기르고있던 약 20만마리의 닭을 죽였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새로운 형의 조류독감비루스가 발견되여 피해가 확대되였다.

지난해 11월 네데를란드의 어느 한 닭목장에서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 닭들이 발견되여 15만마리를 처리하였다.

정부는 닭고기와 닭알판매를 중지하였으며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주들에 이 비루스가 퍼져 5만 3 000마리의 닭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였고 34개의 가금목장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영국의 어느 한 오리목장에서도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가 발견되여 발병지역부근에 대한 통행제한조치를 취하고 6 000마리의 오리들을 처분하였다.

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으로 도이췰란드에서는 1 000여마리의 물범이 죽었고 이딸리아에서는 수만마리의 칠면조가 처분되였다.

최근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하고있는 H5N8형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는 지난 시기와 다른 새형의 병원체라고 한다. 유럽의 해당 나라들에서 이 병원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산하의 여러 기관들에 경계태세를 갖추게 하였고 단마르크에서는 네데를란드로부터 수입하고있는 닭알과 기타 가금류제품들에 대한 위생검역을 강화하였다.

마께도니아정부는 네데를란드와 영국으로부터의 모든 가금류와 닭알의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비루스가 전파될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로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실시하고있다.

조류독감비루스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발생하여 인적, 경제적피해를 주며 확대되고있다.

에짚트에서는 지난 1월 20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였으며 그중 5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나이제리아의 11개 주가 조류독감비루스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 나라 정부는 조류독감비루스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조류독감은 조류나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급성돌림감기이다. 일반적으로 조류독감은 조류나 가금류들호상간의 접촉으로 생기는것으로 되여있었으나 그후 가금류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여 인간의 생명과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후과를 미치고있다.

과학자들에 의해 조류독감비루스와 관련하여 많은것이 밝혀지고 나라마다 조류독감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지고있지만 오늘까지도 조류독감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며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있는데 대처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김 철 룡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막아나선 미국의 죄악 (7)

평화와 통일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주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그 어느때보다 활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1990년대 초엽 판문점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리였으며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없이 공동응원을 하며 통일열기를 돋구었다. 평양과 서울에서는 북남통일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평양과 서울에서 진행된 통일축구경기는 순수 체육경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통일축전이였다. 또한 통일음악회들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여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열망을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우리 공화국의 진지하고도 주동적인 노력으로 북남고위급회담이 여러차례 진행되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으며 각 부문별부속합의서까지 채택되였다. 이것은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근 20년만에 있은 중대사변이였으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데서 이룩된 획기적인 전환이였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은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범민족대회가 열릴 때에도 그렇고 북남통일축구경기, 통일음악회들을 비롯한 체육, 음악축전이 진행될 때에도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을 부추겨 그 성과적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섰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벌린 전쟁불장난소동으로 하여 북남대화도 힘겹게 이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였지만 그 실천을 위한 앞길에 장애가 조성되였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을 사촉하여 북남고위급회담의 막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전쟁모의를 하고 전쟁도발문서인 《전시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조선반도에 고의적으로 긴장격화를 몰아왔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 목적밑에 핵소동을 일으키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등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특별사찰과 제재소동을 벌리였다.

한편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못이겨 중단하였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였다. 이로 하여 북남대화는 전면동결되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이 차단되였다.

북과 남으로 오가던 통일사절들의 앞길에 차단봉이 내리워지게 되였다.

당시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재개를 두고 《음악을 듣는듯 즐거운 일》이라고 너스레를 피운것은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차단시키는데서 어떤 쾌락을 느끼며 전쟁연습소동에 미쳐있었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1994년에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련합전시증원연습》으로 간판만 바꾸어놓고 북침전쟁연습책동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미국이 남조선과 야합하여 벌린 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대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으며 전쟁불장난이 계속되는 곳에서는 북남대화의 성과도, 조선반도의 평화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똑똑히 새겨주었다.

언제인가 네팔신문 《저너 다러나》는 《조선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은 자체의 민족내부모순에 의하여 분렬된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함께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결과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조선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있기때문이다라고 폭로하였다.

조선반도에 긴장격화의 악순환만을 몰아오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죄악의 력사를 강산이 열백번 변한다고 해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림 원

ㄱ-51036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